

월간 해외문화정책동향
2020. 4월

Vol.2

ISSN 2713-9387

모음

세계는 지금, 코로나19 위기 대응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KOFICE

I 특집기획 |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는 각국의 문화지원정책

4 미주, 유럽, 오세아니아, 아시아

II 세계는 지금 | 정책 동향

- 15 1. 문화예술 : 프랑스, 스페인, 캐나다, EU, 멕시코, 태국
- 18 2. 문화산업 : 영국, 프랑스, 벨기에, 캐나다, 아르헨티나
- 20 3. 문화재 : 폴란드, 터키
- 21 4. 체육 : 터키, 벨기에, 태국
- 22 5. 관광 : 호주, 싱가포르, 프랑스, 벨기에

III 세계는 지금 | 이슈 동향

- 25 1. 오스트리아가 신설한 예술문화부, 새로운 문화정책 방향 발표
- 29 2. 한국의 소프트파워, 한류문화를 선두로 부상
- 33 3. 코로나 팬데믹 현실화되면 '세계 GDP 1조 증발'

IV 이달의 담론 | 2020년 한-러 상호교류의 해, 새로운 문화 소통을 생각하다

V What's on KCC abroad | 재외한국문화원 4월 활동계획

I

특집기획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는 각국의 문화지원정책

- 1 미주
- 2 유럽
- 3 오세아니아
- 4 아시아

코로나19의 감염확대방지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문화예술기관은 임시 휴업에 들어갔으며 예정되었던 콘서트, 스포츠, 문화행사가 잇따라 취소됐다. 이에 각국은 재정적으로 존립 위기에 처한 문화예술기관과 문화예술인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미주

미국

미 연방정부, 문화예술계 3억 달러 지원 결정

미국은 코로나19의 여파로 문화예술계가 약 36억 달러(한화 약 4조6백억 원)의 재정적 타격을 입었다고 보고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을 결정했다. 미 의회는 3억 달러(약 3,600억 원) 이상의 기금을 비영리 문화단체, 박물관, 도서관, 지방 예술단체 및 문화예술계 종사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는 그동안 기부와 후원금으로 운영되던 미국 문화예술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다. 이 기금은 50개 주의 비영리 또는 공공 문화 기관에 지급될 것이며 전국적으로 지역사회 내 수많은 문화단체와 일자리를 보존하기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다음과 같은 예술 관련 항목을 포함한다.

1) 연방정부의 예술기금 지원 (연간지원금 유지와 추가지원 제공)

- 미국국립예술기금위원회(NEA)에 7천5백만 달러(약 9백15억 원) 지원
- 국립인문재단(NEH)에 7천5백만 달러 지원
 - * 의회는 NEA와 NEH 보조금을 비롯해 프로젝트 보조금 지급 시, 보조금 수혜요건의 충족여부를 따지지 않고 긴급운영자금 제공의 형태로 지원할 예정
- 공영방송공사(Corporation for Public Broadcasting)에 7천5백만 달러 지원
- 도서관 및 박물관 과학 연구소(Institute of Library and Museum Sciences)에 5천만 달러 지원
- 케네디 센터(Kennedy Center)에 2천5백만 달러 지원
- 스미스소니언(Smithsonian)에 7백5십만 달러 지원

2) 커뮤니티 개발보조금(CDBG)¹, 중소기업청(SBA)² 과 실업보험(UI) 관련 예술지원 사항

- 시, 도에 대한 커뮤니티 개발보조금(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 CDBG) 지원금 50억 달러 지원
-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에 비상대출(Emergency Loan)로 3천5백억 달러 지원
-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독립 예술가, 소규모 기관 등)은 최대 1천만 달러까지 비상대출을 받아 급여, 담보·임대료, 공공금과 기타 운영비용 등의

¹ 미국 주택 도시 개발부의 가장 오래 운영되는 프로그램 중 하나로 저렴한 주택, 빈곤 퇴치 프로그램과 인프라 개발을 목표로 지역 사회 개발 활동에 자금을 지원

² 기업가와 소기업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설립과 생존을 가능하게하고 재난 후 지역 사회의 경제 회복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경제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주요업무인 미 정부기관

고정비용 지급의 어려움 해소 가능

- 경제적 피해 재난 융자(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EIDL)³로
중소기업과 비영리 단체에 대한 최대 1천억 달러 대출
-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 UI) 확장: 실업자, 프리랜서, 문화예술계 내
임시직 근로자들을 위한 법안으로, 주 정부의 실업 프로그램 외에 4개월 동안
주당 600달러라는 실업보험을 추가지급

3 급여, 담보·임대료, 기타
운영비용에 사용할 수 있는
긴급경제 상태 재해 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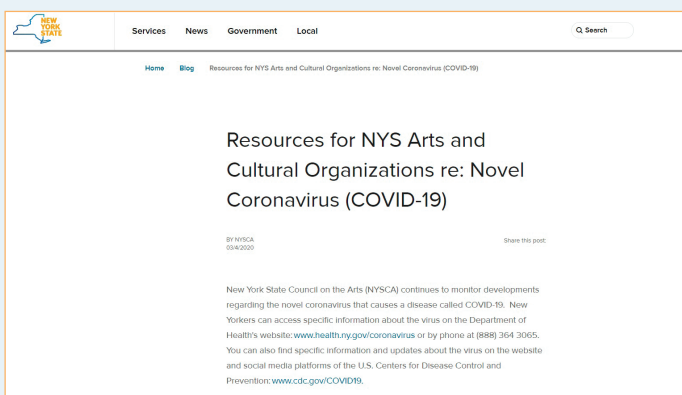
3)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 항목별 공제 납세자(전체 납세자의 90%)에게 기부금에 대해 300달러까지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
- 이번 경기부양책은 조정총소득(AGI)⁴의 60%에서 2020년에 이루어진
기여금의 100%로 항목별 연간 기여금 상한선을 상향 조정할 계획

4 총소득에서 세금공제 항목
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액수

미국은 문화예술 지원방안에 대해 연방정부 차원의 큰 틀을 제시하면서, 주 정부 차원에서도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뉴욕주는 '예술 산업인들의 네트워크-예술가들을 위한 응급 펀드', '인디 공연 극장 펀드-빠른 비용 지원', '컬처 에이드-자료', '트리 클럽-뉴욕시 아티스트 네트워크'와 같이 재정뿐 아니라 행정적인 도움을 주는 다양한 정책에 대한 안내링크를 주정부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은 실업급여와 더불어 자신에게 맞는 추가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생활이 어려운 미술가와 중소규모의 문화예술단체들을 돕기 위해 예술가 구제 프로그램(Arts Relief Program)을 편성한다고 발표했다. 지원자는 시로부터 250만 달러의 초기 자금을 지원 받을 것이며 보조금 수혜와 저금리 대출이라는 두 가지 선택권이 제공된다.

뉴욕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코로나19 지원정책 안내 (사진 출처: 뉴욕주 홈페이지)



캐나다

연방정부 차원의 긴급지원, 문화부의 정부보조금 지급 유지 결정

캐나다 연방정부는 지난 3월 18일 8백20억 달러(약 70조6천2백억 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과 '긴급 보조금(Emergency Care Benefit)', '긴급 지원 혜택(Emergency Support Benefit)'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실업에 직면했지만,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 EI)의 자격은 갖추지 못한 자영업자와 임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문화유산부 장관은 "자영업 창작 활동가(self-employed creative worker), 지역 기관, 스포츠·문화 기관이 겪는 어려움을 알기에 행사가 취소된 경우에도, 정부 보조금을 회수없이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급된 보조금 내에서 공연 취소 관련된 모든 금액과 급여가 해결돼야 한다.

아르헨티나

디지털 콘텐츠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집에서 문화'

아르헨티나는 정부는 '집에서 문화'이라는 캠페인에 약 500명의 예술가를 고용했다. 고용된 예술가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번 격리 기간 동안 집에서 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공중보건에 대한 홍보를 담당한다. 문화부는 디지털 콘텐츠 제작과 온라인 플랫폼 운영을 발표하는 한편, 우선순위에 따라 문화예술기관과 예술인에 대한 긴급자금도 제공할 계획이다.

칠레

온라인 공공 상담과 설문을 통해 예술가를 위한 기금마련

칠레 문화부는 문화예술계에 150억 페소(약 2백19억 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콘수엘로 발데스(Consuelo Valdes)장관은 "위기에 직면한 문화예술 분야에 긴급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온라인 공공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한 설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설문은 총 45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관 혹은 개인이 현재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라 밝혔다. 문화부는 3주간 진행될 온라인 설문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체계화해, 기관과 예술가를 위한 기금을 마련할 것이다.

Subsecretaría
de las Culturas
y las Artes

Salir y limpiar encuesta

Catastro de estado de los agentes culturales y artísticos / COVID-19

Estimadas y estimados trabajadores de las culturas y las artes:

A raíz de la emergencia sanitaria producida por el brote de coronavirus, como Ministerio de las Culturas, las Artes, y el Patrimonio, hemos diseñado una Consulta Pública Online para desarrollar un catastro del estado laboral y económico de agentes y organizaciones culturales.

Requerimos esta información para poder reformular nuestros instrumentos de apoyo, con el fin de hacernos cargo de las necesidades que han emergido en el campo cultural. Debemos aclarar que el Ministerio de las Culturas no tiene la facultad legal de realizar aportes que no estén directamente ligados a la actividad artístico-cultural. En ese sentido, la información recabada también servirá para coordinar el trabajo y entrega de información a otros ministerios cuyo ámbito de acción sea, por ejemplo, la protección social.

Para esto, es fundamental que desarrollen el cuestionario que se presenta a continuación, para generar un diagnóstico desde los propios agentes del sector.

Antes de completar la encuesta lea las siguientes definiciones e instrucciones:

Persona independiente o trabajador de una institución u organización:

독일

일반·특별 지원방식을 통한 제도 마련

독일 연방정부는 코로나19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 지원책인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정을 통해 총 7천5백억 유로의 긴급 보조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독일은 일반·특별 지원방안을 운영할 예정인데, 일반 지원방안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지원, ▲유동성 지원과 파산보호, ▲세금 경감, ▲단축노동에 대한 사회보험금 지원, ▲프로젝트 지원금 반환 요구 포기 등이 있으며, 특별 지원방안은 ▲예술가보험 같은 사회보장제도가 있다.

1) 일반 지원방안

- **즉시지원금(Soforthilfe-Program)** 전 사회영역을 아우르며 추후 반환이 필요 없는 즉시 지원금으로 각 주정부를 통해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같은 소규모 사업자에게 총 5백억 유로(약 68조 원)가 투입될 예정이다.
 - 1인 자영업자와 5인 이하 소기업: 3개월간 최대 9천 유로 무상지원
 - 10인 이하 소기업: 3개월간 최대 1만5천 유로 무상지원
- **파산법 개정 추진**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은 일정 기간 파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 **세금 경감** 행사 취소, 입장권 환불 등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고려해 변동된 예상수입 신고에 따라 보험료와 세금을 재산정해 부과한다.
- **단축노동지원금(Kurzarbeitergeld)** 단축노동지원금은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해고 대신 노동 시간을 줄이는 경우, 정부가 노동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이다.
- **프로젝트 지원금 반환 요구 포기** 프로젝트 지원금이 목적에 맞게 쓰이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지원금을 반납해야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프로젝트 연기나 취소의 경우, 정부가 지원금 반환 요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 특별 지원방안

- **예술가보험(Kunstlersozialkasse)** 독일 내 예술가는 매년 예상 수익을 통해 의료, 연금, 간병 보험료를 책정 받으며 이중 절반은 국가가 부담한다. 코로나19로 수익 하락이 예상되는 예술가는 예술가보험에 신고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스페인

정책 '유연성'을 통한 예술가의 임금보장

스페인 문화부 장관 호세 마누엘 로드리게즈 유리베스는 각 자치주 문화부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코로나 19 수습에 2천억 유로(약 274조원) 규모의 긴급 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 중 문화예술계는 기업에 대한 1천억 유로(약 137조원)의 긴급 대출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는 문화예술 분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일 뿐 문화계 손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은 아니라는 반응이 일었고 이에 스페인 문화부장관은 부가가치세를 21%에서 10%를 줄이는 방안도 내놓았다. 또 스페인공연예술기관(AAEE)의 헤수스 시마로는 폐쇄한 모든 극장 직원들에게 ERTE(일시적으로 회사에서 해고된 상태로, 정부가 실업급여로 임금의 70%가 지원하는 고용 임시방편)를 적용하고 있다.

프랑스

다양한 지원제도와 실업급여 '앵테르미탕' 확장

프랑스 문화부는 ▲예술가 실업지원, ▲사회보장세·직접세 납부 연기, ▲중소기업과 프리랜서를 위한 자금지원정책, 프랑스 공공투자 투자은행(BPI)이 보증하는 ▲단기간 융자 등을 제안했다.

특히, 공연예술 실업급여인 앵테르미탕 뒤 스펙터클(Intermittent du Spectacle)⁵에 대한 추가 지원책을 발표하며, 국립극장의 고용유지를 위해 5백만 유로(약 68억 원)의 긴급 보조금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 비정규직 근로자와 예술가의 불안정한 상황을 고려해 실업보험제도를 동등하게 적용하고, 최소 근무시간을 충족할 경우 일하지 않는 기간에도 실업급여 지급

폴란드

문화유산부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 정부는 보조금 지급

폴란드 문화유산부는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과 문화예술 분야 구조기금 지원을 발표했다. 문화유산부 장관 피오트르 글린스키(Piotr Gliniski)는 온라인상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는 프로그램(Twórczość w Internecie)에 2천만 즈위티(약 58억7천8백만 원) 투입을 공표했다. 또 박물관, 도서관 온라인 플랫폼 구축과 예술문화 작품 디지털화 작업에 각각 150만 즈위티(약 4억4천만 원)와 8백만 즈위티(약 23억6천만 원)를 배정해 시민들이 어디서든 문화예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화유산부는 폴란드영화예술협회(PISF)와 계약을 통해 영화 제작사를 지원하고, VOD 플랫폼과 인터넷에서 영화 개막을 허용하도록 법안 개정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폴란드 정부는 폴란드 평균 임금 한도 내에서 수혜 기업 내 노동자 임금의 40%를 지원할

예정이며, 강행 규정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특정 프로젝트 수행 계약을 맺은 개인 사업체나 개인에게는 최저임금의 80% 수준까지 1회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주

연방정부의 '코로나19 패키지' 발표

플레처 통신예술부 장관(The Hon. Paul Fletcher)은 '코로나19 패키지'를 발표했는데, 이는 크게 구직자수당(JobSeeker Allowance), 사업지원정책(Business Support Measures), 그리고 대출보증계획(Loan Guarantee Scheme)이 있다.

- **구직자수당(JobSeeker Allowance)** 통상적인 실업 정책으로 구직자수당을 수급하는 데는 자산심사(Asset Test)가 요구되며, 수당 금액은 2주에 550 호주달러(단신의 구직자 기준, 약 41만 원)이다. 이번의 특례조치는 한시적으로 6개월간 자산심사를 면제하고, 기존의 수당 수급자와 신규 수당 수급자에 대해 코로나바이러스 보조금으로 2주에 550 호주달러를 추가 지급한다. 이 소득지원정책으로 특히 임시직노동자와 독립자영업자(Sole Traders)가 많은 문화·창조 부문에서 노동자의 소득손실이 상당 부문 보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사업지원정책(Business Support Measures)** 중소기업체나 비영리조직(자선단체 포함)의 경영안정화와 고용유지를 위한 현금 유동성 제공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연방정부가 최대 10만 호주달러를 지원하며, 자격요건은 사업체의 임금 지급액이 2만 달러 이상인 경우다. 소규모공연장 등과 같은 중소규모의 예술부문 조직(Arts Organisations)이 이와 같은 사업지원정책을 이용할 수 있다.
- **대출보증계획(Loan Guarantee Scheme)**: 한시적으로 대출보증이 무료로 이뤄지며, 최초 6개월간 분할상환이 유예된다. 대출금액의 상한은 25만 호주달러(약 1억8천5백만 원)이며, 기간은 최장 3년이다. 6개월간의 대출금 분할상환 유예를 위해 은행 부문에 80억 호주달러(약 5조9천억 원)가 준비되어 있다. 영세한 사업체가 다수인 문화예술 분야의 특성상 사업체의 지속적인 경영을 위해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예술부문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호주예술위원회(Australia Council for the Arts)와 통신예술부는 지원금 내역에 대한 보고의무의 면제나 연기, 프로젝트 기간의 연장, 관객모집 조건 면제, 보조금의 선지급 등과 같은 조치를 고려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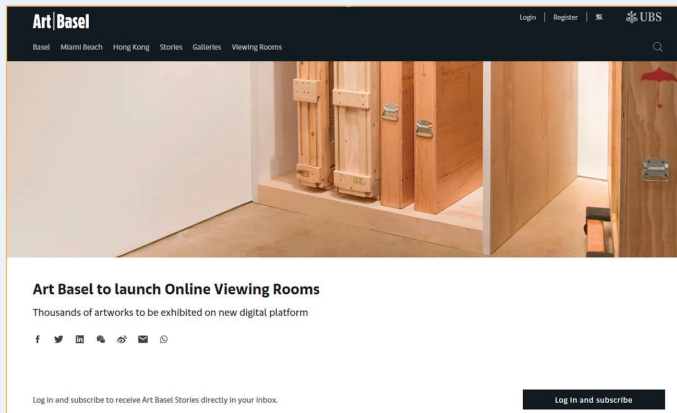
홍콩

‘아트바젤’, 온라인으로 전시공간 마련해 판매까지 진행

아시아 최대 규모 미술 시장인 아트바젤 홍콩 측은 온라인 전시 공간(Online Viewing Room)을 통해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할 기회를 제공했다. 갤러리당 10작품씩 온라인 공간에 작품을 전시했으며 작품판매도 생중계됐다. 홍콩정부는 사회 전 영역에 250억 홍콩달러 규모의 정부보조금을 편성할 계획이며, 자금의 절반 이상은 소매, 식음료, 운송, 문화예술과 관광업 등 타격이 심한 산업에 일회성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전시공간을 운영 중인 아트바젤 홍콩 공식 웹사이트

(사진 출처: <https://www.artbasel.com/stories/art-basel-online-viewing-rooms> 참조)



몽골

방송으로 즐기는 연극과 공연

몽골 국립극장은 극장이 폐쇄되면서 대중들에게 선보이지 못한 연극을 IPTV 업체와 협력해 방송으로 소개하기로 했다. 이 기회를 통해 연극은 새로운 공연경로를 개척하고 수익도 창출해 낼 것으로 보인다. 유명 록 밴드 ‘KHURD’는 공연이 무산되자 관객없는 공연을 열고 몽골 TV(Mongol TV)를 통해 공연을 무료로 방송했다. 생방송으로 진행된 공연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모금도 함께 진행됐는데, 이날 모은 2억8천4백만 투그릭(약 1억2천만 원)은 국가비상대책위원회에 전달됐다.

록 밴드 KHURD가 콘서트에서 모금한 기부금 2억8천4백만 투그릭을 국가비상태책위원회에 전달
(사진 출처: mongol.tv.mn)



II

세계는 지금 정책 동향

- 1 문화예술: 프랑스, 스페인, 캐나다, EU, 멕시코, 태국
- 2 문화산업: 영국, 프랑스, 벨기에, 캐나다, 아르헨티나
- 3 문화재: 폴란드, 터키
- 4 체육: 터키, 벨기에, 태국
- 5 관광: 호주, 싱가포르, 프랑스, 벨기에

1. 문화예술

여성의 날 기념, 유럽 내 다양한 양성평등 정책

프랑스

프랑스 문화예술계, 다양한 양성평등 정책 추진 중

프랑스 문화부는 문화예술계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객관적 지표와 자료구축을 목적으로 2013년부터 <문화통신 분야 양성평등 실태 조사 보고서>를 발간해왔다. 또 2018년에는 <남녀평등 2018-2022 로드맵(Feuille de route Égalité 2018-2022)> 수립을 통해 ▲남녀 임금 격차 해소와 공공기관장의 여성 채용 확대, ▲문화 분야 내 성폭력 근절, ▲성 고정관념 탈피 등 양성평등을 위한 실질적 제도마련을 목표로 했다. 프랑스 문화부는 현재 설립 중인 국립프랑스음악센터가 문화예술계 내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거점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 130만 유로(약 17억 원)의 예산 배정을 약속했다. 이 예산은 여성 창작자와 그들의 작품을 지원하고 성차별 철폐를 위한 홍보 캠페인 진행 등에 쓰일 예정이다.

스페인

스페인 문화부 장관, 문화·체육계 내 양성평등 계획 발표

로드리게스 우리베스(Rodríguez Uribe) 문화부 장관은 2025년까지 양성평등을 목표로, '영상과 시청각 예술 기관의 50/50 액션 플랜'을 완성할 계획이라 밝혔다. 영상예술 부문에서는 여성참여 도모를 목적으로 여성 감독이 참여하는 단편 영화 등에 제작 예산의 35%를 지원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도서와 시각예술 영역에서도 여성 작가의 저서와 작품이 더욱 배출될 수 있도록 문화부 예술총국에서 특별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캐나다 정기간행물기금(CPF)¹, 현대화(Modernization) 2021-2026

계획 발표

연방정부는 저널리즘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캐나다 정기간행물기금의 현대화 계획을 5년(2021-2026)에 걸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광고 수입 및 유통 감소 문제로 어려움에 직면한 신문 산업(유가지 및 비일간지 출판사)의 디지털화 시장 진입과 부흥을 목표로 한다. 지원의 주요내용은 발행사지원금(ATP)², 사업혁신지원금(BI)³, 공동 이니셔티브(CI)⁴이다.

2020-2021: 현재 지원 프로그램	→	2021-2026: 지원 프로그램 현대화 내용
Rewards print circulation 인쇄매체 지원		Rewards investment in editorial and journalistic content, and ability to reach readers 편집 및 취재콘텐츠와 독자층 확보를 위한 투자 지원
Focuses on print in the ATP component 발행사지원금(ATP), 인쇄매체에 집중		New ATP sub-component for digital-only periodicals in 2021-2022 2021-2022년도 디지털 정기간행물을 위한 발행사지원금(ATP)에 새로운 하위 지원 항목 신설
Focuses on small and mid-sized magazines in the BI component 사업혁신지원금(BI), 중소잡지사 집중경제회복력		Allows broader range of periodicals to apply to the BI component 사업혁신지원금(BI)에 더욱 확대된 종류의 정기간행물 신청 가능 (새로운 미디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광고 및 홍보 캠페인, 웹 디자인 및 개발 등)
BI component budget of \$1.5 million 사업혁신지원금(BI) 예산 150만 캐나다달러		BI component budget of \$2.5 million 사업혁신지원금(BI) 예산 250만 캐나다달러

(출처: Government of Canada, 2020.02.18.)

¹ Canada Periodical Fund(CPF): 7천4백만 캐나다달러(약 6백80억 원)의 CPF는 캐나다 유가지, 비일간지, 디지털 정기 간행물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시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캐나다 독자들에게 고품질 콘텐츠를 지속 제공

² Aid to Publishers(ATP): 유가지, 비일간지 출판사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

³ Business Innovation(BI): 자격을 갖춘 중소 인쇄 잡지, 디지털 정기 간행물 출판사에게 재정적 지원과 새로운 미디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광고 및 홍보 캠페인, 웹 디자인 및 개발, 등 새로운 시장으로의 확장을 포함

⁴ Collective Initiatives(CI): 캐나다 잡지와 비일간지 산업의 전반적인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단체들을 위한 기금 프로젝트

EU

브렉시트 후, EU 내 언어사용이 다양해 질 것으로 전망

영어는 EU가 인정하는 24개의 공식 언어 중 하나이며, 회원국 탈퇴와 상관없이 유일하게 EU 이사회만이 공식어 지정과 삭제 권한을 가진다.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어는 EU 공식 언어로 계속 사용될 예정이나, EU 내 언어사용이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에 따르면, 브렉시트 이전 EU 회원국 내 영어 사용자(모국어) 인구수가 3위로 집계되었던 반면 브렉시트 이후 영어사용 인구수는 24개 언어 중 17위로 하락할 예정이다. 이는 프랑스어와 독일어를 필두로 EU 내 다양한 언어사용 문화를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LE SOIR 2020.01.28.)

멕시코

문화를 국가변혁과 사회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오브라도(AMLO) 대통령은 취임 이래 문화의 역할을 해왔다. 그 일환으로 문화를 통한 국가변혁과 사회 통합 및 사회 불평등 문제 해결을 역설했다. 또한 부처 간 협업을 통한 공공시설과 문화공간 활용 극대화 전략으로 대통령 집무실이자 관저인 로스 피노스(Los Pinos) 공간을 시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프로젝트도 추진했다. 문화예술산업 분야 임금지급 문제 해결, 전통공예 분야 육성 등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마련하고자 했으며, 문화를 동반한 공중보건 인식제고와 예술 분야 조기교육 실시 등을 제안했다.

태국

매년 12인의 국민예술가(National Artist) 선정

태국은 매년 태국 예술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12인을 국민예술가(National Artist)로 선정한다. 국민예술가로 선정된 사람은 매달 2만5천 바트의 지원금을 평생 받게 되며, 1년에 최대 10만 바트(약 370만 원)의 의료비 지원, 재난 지원금 5만 바트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올해에는 문학 분야 2명, 드라마틱 아트(태국전통음악 및 무용, 국제음악 및 무용, 영화 및 드라마) 분야 6명, 시각예술 분야에 4명의 예술가가 선정되었다. (출처: 태국문화부 사이트, 2020.02.18.)

2. 문화산업

디지털 콘텐츠 제작과 온라인 플랫폼 마련에 집중

영국

창의산업(Creative Industry)에 부과하는 세금감면 혜택의 경제적 효과 강조

영국은 창의산업에 부여하는 세금감면 혜택이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며 정책효과를 강조했다. 영국 영화협회(BFI)에 따르면, 1파운드의 세금혜택이 7파운드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한편 영국은 현재 8개 분야(영화, 하이엔드, 아동, 애니메이션, 비디오게임, 연극, 오케스트라 공연, 미술관·박물관 전시 등)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프랑스

Lumni, 영상 문화 콘텐츠 제공 온라인 플랫폼 운영

프랑스 문화부는 2019년부터 공영방송사 프랑스 텔레비지옹(France Television) 및 교육부와 협력해, 영상 문화 콘텐츠 시청과 디지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Lumni를 운영하고 이를 공공교육 과정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본 플랫폼은 교육부의 <이미지, 영화와 시청각자료 교육 정책>¹의 일환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학습능력 향상을 주 목적으로 한다. 플랫폼에서는 영화를 포함한 4천여 건의 문화 콘텐츠와 영상 교육 자료가 초·중·고등학생과 교육기관 관계자에게 무료로 배포되며 단순히 영상을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프랑스 국립도서관과 연계해 교육 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교육과 관련된 자료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문화부는 동 프로젝트를 통해 21세기형 ‘시네-클럽(Cine-club)’²을 부활시키겠다고 선언하며 포부를 드러냈다.

1 <이미지, 영화와 시청각자료 교육(L'éducation à l'image, au cinéma et à l'audiovisuel)> : 프랑스 교육부가 진행 중인 문화예술 교육

아동과 청소년이 접하기 쉬운 문화 산물 중 하나인 시청각 매체(영화, 사진, 방송, 인터넷 등)를 교육에 접목해 이들이 문화를 배우고 예술 경험을 하며 장래 계발을 할 수 있도록 장려

2 1920년대 프랑스를 비롯해 영국, 미국에서 결성된 영화 동호인 모임 및 관련 활동을 지칭하며 프랑스에서는 영화비평가 리치오토 카누도(Ricciotto Canudo)와 루이 델뤼크(Louis Delluc)등에 의하여 창시되어, 작가주의, 고전 영화 상영회,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오늘날 프랑스 영화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

벨기에

벨기에 Antwerpen시와 Bist시, 무인 도서관 개관

벨기에 Antwerpen시와 Bist시는 도서관 개관 시간 이외, 도서 대여와 반납이 가능한 무인 도서관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밝혔다. 1년 동안 시범 운영 후 성과가 긍정적인 경우 무인 도서관을 확대해 운영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 감시카메라도 설치할 계획이다.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는, 무인 도서관 제도가 이미 잘 정비되어 있으며, 도서관 개방 시간 이후에도 신문이나 책을 읽으며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무인 도서관 제도는 회원제로 관리될 예정이며, 참여를 원하는 경우 도서관 시스템 이용 관련 강좌를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한다.

(출처: DE STANDAARD 2020.02.24)

캐나다

연합방송통신 입법검토위원회(BTLRP)³, 캐나다 통신 현대화를 위한 권고 발표

연합 방송 통신 입법 검토 위원회는 캐나다의 방송법, 통신법과 무선통신법을 검토하고, 입법과 규제 현대화를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선진 통신 네트워크에 대한 모든 캐나다인의 진입장벽 감소 ▲캐나다 콘텐츠의 생성, 제작과 검색 지원 ▲디지털 소비자의 권리 향상과 디지털 환경에 대한 신뢰 강화 ▲통신 부문의 제도적 구조 갱신 등이 있다.

³ the federal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s Legislative Review Panel(BTLRP): 2018년 6월, 캐나다 혁신부, 과학 및 경제개발부, 문화유산부에 의해 만들어진 6인 위원단

아르헨티나

외교부 주도 문학작품 외국어 번역 지원 프로그램 운영

아르헨티나 외교부는 국가 간의 문화적 교류와 주재국의 문학산업 발전을 위해 문학작품 외국어 번역 지원 프로그램인 ‘프로그램아 수르(Programa Sur)’를 2009년부터 운영 중이다. 장르를 불문하고, 해외출판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혜 대상으로 선정된다. 해당 사업의 보조금 예산은 연 15만 달러로 책정되어있다. 출판사별 지원 한도는 3천2백달러(번역료)로 문학작품에 대한 저작권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국가별 프로그램아 수르를 통해 번역된 작품 수(2009-2020)⁴

1	이탈리아 194권	11	마케도니아 28권
2	프랑스 118권	12	루마니아 22권
3	독일 96권	13	이집트 22권
4	브라질 62권	14	스위스 21권
5	불가리아 50권	15	네덜란드 21권
6	미국 48권	16	포르투갈 17권
7	체코 39권	17	세르비아 17권
8	영국 32권	18	우크라이나 15권
9	그리스 29권	19	스웨덴 14권
10	이스라엘 29권	이외	대한민국 3권

⁴ 49개 언어, 51개국, 총 1,472개 작품

3. 문화재

폴란드

그단스크(Gdańsk) 조선소, 세계유산 등재 신청

폴란드 문화부는 폴란드 북부 ‘그단스크(Gdańsk) 조선소’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 신청하는 제안서를 제출했다(2020.01.31.). 동 신청서는 그단스크 조선소가 세계사의 주요 사건들을 목격하며 민주적인 유럽의 통일을 이끌어 왔고, 폴란드 자유노조연대 ‘솔리다르노시치(Solidarność)’의 탄생지이자 ‘철의 장막’ 붕괴의 상징으로 세계사와 인류의 공동유산에 매우 중요한 곳이라 설명했다.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 Sites) 전문가들은 신청서를 검토하고, 첫 번째 심사 단계를 진행 중이다.

터키

해외로 반출되었던 역사 유물 2점, 터키로 반환

영국으로 반출되었던 기원전 3000~2000년경의 아나톨리아 유물인 두 마리의 황소가 끄는 수레 동상과 세 조각의 시다마라(Sidamara)양식의 석관이 터키 문광부의 노력으로 터키로 돌아왔다. 터키 문광부 장관은 이 유물들이 앙카라 아나톨리아 문명박물관에 전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출처: Sozcu 신문, 2020.02.15.)

4. 체육

터키

어린이 체육 능력 측정을 통한 올림픽 인재 육성

청소년 체육부 장관 무하렘 카사프오울루는 '체육 능력 측정 프로젝트'를 통해 지난 1년간 어린이 120만명의 체육 능력을 측정하였고, 이 중 약 11만 명의 재능 있는 어린이를 선발하여 올림픽 인재로 육성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선발된 어린이들은 기초 운동과 스포츠 능력 교육 과정을 마친 후, 올림픽 준비 센터와 선수 교육 센터에서 대회, 토너먼트, 선수권 대회와 올림픽을 위한 인재로 육성된다. (출처: Hurriyet 신문, 2020.02.25.)

벨기에

소년원과 교도소 내 스포츠 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왈로니아·브뤼셀 지방정부 체육부는 2020년 동 지역 소년원과 교도소 내 청소년(14~18세) 수감자 체육 활동 지원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스포츠가 육체적 건강뿐 아니라 건전한 정신을 위해서도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데 주목해 한 해 동안 18개 교도소 내 체육 교육 활동 지원 사업이 운영된다. 기획서 접수와 심사를 통해 총 4만 유로의 예산이 배정될 예정이며, 예산은 인건비, 교통비, 체육 활동 지도를 위한 직접 비용을 위해서만 활용 가능하다. 기타 필요물품은 지방정부 스포츠 센터에서 대여할 수 있다. (출처: www.sport-adepts.be | 왈로니아·브뤼셀 지방정부 공식 홈페이지)

태국

스포츠 관련 홍보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태국관광체육부 장관과 총리실 장관이 공동 의장으로 참석하여 국영방송(MCOT), 홍보부(PRD) 그리고 체육청(SAT) 간, 스포츠 관련 홍보 증진을 위한 MOU 체결에 서명했다. 태국관광체육부는 이 세 곳과 협력해 스포츠 관련 콘텐츠 미디어를 제작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홍보할 계획이며, 스포츠 관련 학술과 기술 증진, 방송과 SNS 콘텐츠 활성화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출처: 태국관광체육부 사이트, 2020.02.13.)

5. 관광

코로나19 피해 복구를 위한 관광산업 정책 추진

호주

관광산업 복구를 위한 관광 진흥 마케팅 예금 편성 예정

호주는 산불과 코로나19 피해로 2월 해외관광객 예약이 56% 감소하는 등 관광산업에 최대 피해를 보았다. 이에 연방 관광장관 사이먼 버닝 햄은 사상 최대로 1억5천4백만 달러(약 1천2백억 원)의 관광 마케팅 예금을 편성해 관광지로서 호주의 이미지를 제고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출처: Hurriyet 신문, 2020.02.25.)

싱가포르

싱가포르 관광청, SG Quality Mark 도입

싱가포르 관광청은 3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싱가포르 중소기업청(Enterprise Singapore)과 함께 국가적 차원의 위생과 청결함을 높이기 위해 SG Clean Quality 마크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SG Clean은 당초 환경청(NEA)과 식품청(SFA) 주도로, 외식업계와 숙박업계 등의 청결도를 더욱 높이기 위한 캠페인으로 출범했으나, 코로나19로 관광업계가 심대한 타격을 받으면서 SG Clean Quality 마크는 관광업계 지원책 중 하나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특히, 대규모 환자가 발생한 Grand Hyatt 호텔과 싱가포르 최초의 환자가 발생한 상그릴라 Rasa Sentosa Resort & SPA는 숙박업소 중 최초로 SG Quality Mark를 획득하며 호텔 이미지 개선에 나섰다.

(출처: Enterprise Singapore, 2020.03.12.)

코로나19 관련 관광 산업 구제 긴급대책반 구성

프랑스 재무부 장관 브뤼노 르메르(Bruno Le Maire)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프랑스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30~40% 이상, 관련 수익은 20% 이상(약 60억 유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프랑스 관광청은 재무부와 파리시와의 협의를 통해 피해를 입은 산업체를 구제하기 위한 긴급대책반을 구성하고 이하 내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출처: Enterprise Singapore, 2020.03.12.)

- 피해 사업체 감세와 세금 납부 기한 연장, 은행 대출 지원과 정부 보증 시스템 지원, 행사 취소 관련 보험처리 등의 행정절차 지원, 피해 사업체 인력비 일부 지원, 소비자 및 납품업체 등과의 분쟁 조정 지원, 온/오프라인 핫라인 개설을 통한 사업체의 지원 관련 문의와 신청 절차 간소화 등

브뤼셀, 유럽연합 문화 도시(European Capitals of Culture)로 선정

유럽연합 문화 도시 프로그램은 EU 문화부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 중 하나로, 1985년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진다. 선정과정은 지정연도 6년 전부터 유럽 내 전 지역 도시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전문가들에 의한 공정한 평가를 거치며 선정 도시에는 EU Creative Europe 예산 중 150만 유로를 Melina Mercouri Prize라는 이름으로 지원한다. 선정 도시 운영 이후 EU 집행위와 선정 도시 간 공동 결과연구를 통해 향후 해당 사업 발전방향을 설정한다. EU 문화 도시는 지정 도시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사업을 지원하는 문화기반 구축 사업을 실행하고, 유럽이 가진 공동의 문화적 토대를 바탕으로 유럽인의 문화적 소양을 강화하며, 유럽 내 다양한 문화 콘텐츠 공유와 교류를 통한 개발을 목표로 한다. (출처: EU 공식 홈페이지 2020.01.11.)

여행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전략

브뤼셀은 유럽 연합(EU) 본부가 위치한 행정도시라는 이미지를 상쇄하기 위해 전략적 도시 이미지 관리 사업을 통해 여행하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왔다. 이를 위해 인기 블로거, 인플루언서 등과 활발히 협력해 많은 젊은 관광객을 유치했으며 기존의 전통적 홍보 방식과 비교해 비용 대비 훨씬 큰 효과 거두었다. 특히, 에어비엔비, 호텔 예약 플랫폼 등 다양한 여행 관련 플랫폼의 조화로운 성장을 지향해 지역주민의 주택과 숙박업소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관리했다. 이는 주위 바르셀로나나 암스테르담이 관광지화 되면서 지역주민의 공간이 사라지거나 숙박비가 과도하게 상승한 것과는 대조적이며 관광 도시로서의 성장을 지향하지만 부작용은 최소한으로 줄인 신중한 관광 추진 정책으로 평가된다. (출처: La Libre Belgique 2020.01.11.)

III

세계는 지금 이슈 동향

- 1 오스트리아가 신설한 예술문화부, 새로운 문화정책 방향 발표
- 2 한국의 소프트파워, 한류문화를 선두로 부상
- 3 코로나 팬데믹 현실화되면 '세계 GDP 1조 증발'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가 신설한 예술문화부, 새로운 문화정책 방향 발표

오스트리아는 많은 고전 문화유산을 가진 나라로 '문화 민족 (Kulturnation)'이라 일컫는다. 2차 대전 패전 후 궁핍한 상황에서 1945년 12월 새로 출범한 공화국의 초대 총리 레오폴드 피글은 취임사에서 오스트리아가 전쟁으로 영토가 줄어들어 "작지만 위대한 문화를 가진 나라"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후 '문화 민족' 개념은 오스트리아의 자부심일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에서도 실제로 근간을 이루었다. 종전 후 정부가 출범하기 전임에도 빈 필하모니가 정상화되어 감동적인 공연을 펼쳤고, 전쟁으로 파괴된 오페라극장도 복구되는 등 다른 분야에 비해 문화예술 분야는 전후 복구가 빨리 이루어진 편이었다. 심지어 문화예술인들은 끼니를 걱정하던 궁핍한 시기였음에도 1945년 〈잘츠부르크 축제 (Salzburger Festspiele)〉(1920년~)를 중단 없이 개최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문화적 자존심을 지켰다. 그런 연유에서 지역 축제인 〈잘츠부르크 축제〉 지원이 연방정부의 임무로 규정되어 있다.¹

¹ BGBl. Nr. 147/1950, Errichtung eines "Salzburger Festspielfonds"

잘츠부르크 축제 (사진 출처: 잘츠부르크 축제 홈페이지)



전후 75년 만에 문화예술계 대변하는 부총리급 문화예술 전담부처 신설

올해 2020년, 오스트리아는 '2차대전 종전 75주년', '잘츠부르크 축제 100주년', 그리고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동시에 기념하는 뜻깊은 해다. 아울러 올해 1월에는 오스트리아 역사상 처음으로 대안 정당이었던 녹색당이 보수 국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했다. 정부 구성에 녹색당이 참여함으로써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다. 오스트리아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처럼 문화예술과 체육, 그리고 공공행정 등 방대한 업무를 다루는 <예술문화, 공공행정 및 체육부>가 신설되었고, 특히 문화예술 장관이 총리 다음 2인자로 부총리를 겸하는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

'문화 민족'이라는 정부 출범 당시 선언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 정부내에서 문화예술 업무는 교육부, 국무총리실, 심지어 외교부 업무에 통합 운영되어왔기 때문에, 금년 1월 발표한 신정부의 집권 청사진에는 과거 문화예술 분야 업무와는 다른 새로운 청사진들이 <정부업무계획> (Regierungsprogramm 2020-2024)에 포함되어 있다.²

² Aus Verantwortung für Österreich. Regierungsprogramm 2020-2024, Jan. 2020(총리실 발간)

오스트리아 정부업무계획 2020-2024



2024년까지 오스트리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할 업무계획에는 오스트리아 예술과 문화의 국제경쟁력 강화, 문화예술 환경 개선, 문화적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 문화예술인 지원 확충, 문화예술 분야에서 혁신적 성장, 전문인력 확충 등을 중요한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 과거 정부의 정책목표에 비해 무엇보다 새로운 정책은 문화예술 여러 분야에 대한 다양성 확보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들이다.

유럽 '클래식' 문화의 본고장인 오스트리아는 그동안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Wiener Philharmoniker), 잘츠부르크 축제, 빈 분리파(Wiener

Secession) 미술 등 세계 최고의 클래식 문화콘텐츠를 무기로 문화강국임을 자타로부터 공인받아 왔다. 오스트리아가 그동안 전통 클래식 문화 콘텐츠에 대한 지원정책에 힘을 쏟았고 그것이 대외문화 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오늘날 오스트리아 문화예술에 대해 세계인들이 알고 있는 것은 ‘클래식’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정부 지원이 특정 문화콘텐츠에만 집중되어, 반면에 영화와 대중예술, 현대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이 소홀했다는 비판이 과거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오스트리아 문화정책을 연구한 정치학자 마리는 크납(Marion Knapp)은 정부가 문화예술 지원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원 대상은 수십 년 동안 변화가 없었다고 한다.³ 잘츠부르크 축제나 빈필, 오페라 등과 같은 클래식 전통문화에 집중되는 바람에, 이른바 ‘동시대적인’ 문화예술 활동은 소외되었다는 것이다.

3 ORF,
"Österreichische Kulturpolitik"
(2017.04.08)

문화예술을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 문화예술계 권익 옹호에 역점

하지만 이번 정부 업무에서는 이들 분야에 대한 지원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문화 테크노 허브(Culture Tech Hub) 사업이 대표적이다. 기존의 전통 예술과 문화 활동에 새로운 기술과 디지털 세계가 융합된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산·학·연 협력을 강화해 오스트리아를 전 세계 융합 문화콘텐츠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미 미디어아트 분야 예술가들의 성지라고도 같은 린츠의 ‘아르스 엘렉트로니카(Ars Electronica)’와 같은 대표 상품을 개발하여 경제적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전략이다.

린츠 Ars Electronica 미디어 아트 전시물 (사진 출처: ars.electronica.art 참조)



아울러 오스트리아 문화예술 종사자들의 숙원 중 하나인 ‘공정한 댓가(Fair Pay)’ 확보가 정부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방정부와 주 정부, 자치단체가 그 구체적인 방안을 실천한다는 서로 합의했다. 또 정부가 문화예술인과 계약하는 사업 중 여러 해에 걸쳐 시행할 경우 물가 상승률과 연동한 계약금액 반영(인건비 등)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해 큰 환영을 받고 있다.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 절차를 디지털화하고 원스톱(One Stop)으로 서비스함으로써, 지원 대상 선정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이 모두가 문화예술계에서 오랫동안 정부에 요구해 왔던 것들이다. 또한 여성 문화예술인을 위한 지원정책도 강화돼 성 평등 원칙에 따라 지원 사업을 선정하고, 지원금은 남녀 동일하게 지급하는 등, 성별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공연예술계, 문화부가 신속히 구제 절차에 들어가

3월 10일, 오스트리아 정부는 코로나 사태 확산에 대한 첫 대책을 발표하면서, 가장 먼저 취한 것이 100인 이상 실내공연, 500인 이상 실외공연 및 체육행사에 대한 금지 조치였다. 갑작스러운 발표로 많은 공연단체와 문화예술인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예술가노조나 작가노조 등 이해당사자들은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저지 대책에 적극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스트리아 문화부 역시 공연 중단 등으로 피해를 입은 예술가들과 단체들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문화부 홈페이지⁴에 피해 구제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분야별 상담 코너도 개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특히 당장 생계의 위협을 받는 예술가들을 위해서는 예술가보험 등에서 신속지원하는 구제책을 발표하는 등, 앞으로 더 길어질지도 모르는 문화예술계의 코로나 불황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⁴ www.bmkoes.gov.at
참조

한국의 소프트파워, 한류문화를 선두로 부상

본 내용은 해외문화홍보원의 “해외 싱크탱크 보고서 이슈브리핑 제8호”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원제 Global Soft Power Index 2020 (2020.02.)

발행 英 Brand Finance(브랜드 파이낸스)

링크 <https://brandirectory.com/globalsoftpower>

브랜드 파이낸스(Brand Finance)가 올해 최초로 국가별 ‘글로벌 소프트파워 지수(Global Brand Power Index 2020)’를 발표했다. 미국이 종합 1위를 차지했으며 한국은 14위를 기록했다.

○ 소개

영국의 브랜드 가치평가 및 전략 컨설팅 업체인 브랜드 파이낸스(Brand Finance)¹는 올해 최초로 국가별 ‘글로벌 소프트파워 지수(Global Brand Power Index 2020)’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브랜드 파이낸스는 60개국에 대한 소프트파워를 측정하기 위해 대중(18~75세, 87개국, 54,206명)과 전문가(71개국, 1,021명, 싱크탱크, NGO, 미디어 등에 소속된 자) 집단의 설문의견을 바탕으로 소프트파워를 계산하기위한 7가지 척도를 제시했다. 평가분야는 ▲친근감(Familiarity), ▲영향력(Influence), ▲평판(Reputation)과 함께 ‘7대 소프트파워 분야(7 soft power Pillars: ▲산업·무역 ▲거버넌스 ▲국제관계 ▲문화·문화재 ▲미디어 ▲교육·과학 ▲사람·가치)’이다. 이들은 구체적인 평가항목을 통해 국가별로 소프트 파워 영향력과 순위를 매겼으며 소프트 파워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하였다.

¹ 1996년 런던에서 설립된 후 국가브랜드 순위와 금융·제약·IT서비스 등 산업별 글로벌 순위를 조사·발표하는 기관

○ 국가별 평가결과

[표2] 브랜드 파이낸스 글로벌 소프트파워 지수 2020 국가별 순위(1~20위)

순위	국가	총점	친근감	영향력	평판	산업·무역	거버넌스	국제관계	문화·문화제	미디어	교육·과학	사람·가치
1	미국	67.1	8.6	7.7	7.1	6.6	4.3	6.2	5.5	5.2	6.6	3.9
2	독일	61.9	7.9	6.0	7.4	6.8	5.5	6.4	5.4	5.0	5.9	4.2
3	영국	61.8	8.2	6.3	7.3	5.8	4.7	6.3	6.0	5.1	5.5	4.5
4	일본	60.2	7.6	5.8	7.5	6.9	5.4	5.1	5.7	4.1	6.5	4.7
5	중국	58.7	7.6	7.1	6.5	6.6	3.4	5.4	5.2	2.9	5.1	2.8
6	프랑스	58.5	8.1	5.8	7.1	5.8	4.4	5.8	6.4	4.7	4.2	4.3
7	캐나다	54.5	7.4	5.0	7.5	5.7	5.2	4.9	4.7	4.6	4.3	5.1
8	스위스	54.5	6.9	4.7	7.6	6.7	5.6	5.0	4.8	4.5	4.8	4.8
9	스웨덴	51.9	6.4	4.2	7.4	6.2	5.3	4.6	5.1	4.3	5.0	5.0
10	러시아	51.0	7.2	5.7	6.3	4.0	3.1	5.6	4.9	3.0	4.1	3.5
11	이탈리아	49.3	7.6	4.8	6.8	4.9	3.2	3.7	6.2	3.2	3.2	4.6
12	네덜란드	48.9	6.3	4.2	7.1	5.6	4.9	4.2	4.7	4.4	4.0	4.6
13	호주	48.8	7.0	4.3	7.2	5.4	4.8	3.8	4.7	3.7	3.6	4.8
14	한국	48.3	6.7(14)	4.5(14)	6.7(20)	5.8(7)	3.8(19)	3.6(21)	4.3(28)	3.5(15)	4.6(8)	4.2(18)
15	덴마크	47.7	5.9	3.8	7.2	5.6	5.2	3.9	4.8	3.9	4.2	4.9
16	스페인	47.6	7.5	4.7	6.9	4.5	2.9	3.4	5.8	3.3	2.6	4.7
17	노르웨이	47.3	5.8	3.8	7.3	5.3	5.1	4.0	4.5	4.1	4.4	4.7
18	아랍에미리트	45.9	5.8	4.7	6.6	5.5	5.1	4.7	3.9	3.2	3.0	3.1
19	벨기에	45.5	6.2	4.0	6.9	5.1	4.4	3.9	4.3	3.6	3.2	4.4
20	싱가포르	44.8	6.1	3.9	6.8	5.4	3.9	3.3	3.9	3.2	4.3	3.9

미국

미국은 소프트파워 지수에서 큰 격차로 종합순위에서 1위를 기록했다. 트럼프 행정부를 둘러싼 논란과 국제적으로 엇갈린 반응에 ▲평판(13위)과 ▲거버넌스(16위)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했으나, ▲친근감 ▲영향력 ▲미디어 교육·과학의 영역에서 1위를 차지했다.

유럽

유럽대부분의 국가들은 소프트 파워 지수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다.

독일은 2위에 올랐으며 영국은 브렉시트에도 불구하고 근소한 차이로 3위를 차지했다.

유럽 내 1, 2, 3 순위는 독일, 영국, 프랑스이다.

일본

일본은 아시아에서 1위, 종합 세계 4위를 차지하며, 모든 평가요소에서 상위 10위 안에 든다. 경제적 성장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소비지출과 높은 수준의 기업투자 혜택으로 ▲산업·무역 영역에서 1위를 기록했다. 또 ▲교육·과학 등 연구 개발에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다.

한국

한국은 ▲산업·무역(7위) ▲교육·과학(8위)에서 선두권에 들었으나 ▲문화·문화재(28위) ▲평판(20위)에서 비교적 낮은 순위를 기록해, 종합 14위에 들었다. 반기문 前 UN 사무총장은 본 보고서의 기조연설에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류, 한국음식, K-뷰티 등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소프트파워 부상에 대해 언급했다. 소프트파워를 통해 한국에 대한 세계적 이미지가 제고됐을 뿐만 아니라, 이를 닮고자 하는 국가들도 나타나고 있음을 덧붙였다.

인도

다른 국가들을 참고해보면, 경제적 성장에 따라 소프트파워도 비례해 높게 나타난다. 하지만, 인도는 큰 경제시장과 세계 2위 인구를 지님에도 상대적으로 낮은 소프트파워 지수를 가지고 있다.

중국·러시아

중국과 러시아는 압도적인 존재감에도 불구하고, 소프트 파워 지수에서 각각 5위와 10위를 차지했다. 두 나라는 ▲영향력보다 ▲평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은 각각 2위, 7위인 반면 ▲평판 부분에서는 24위, 26위로 떨어진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고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하며 ▲산업·무역부분에서 5위를 차지했다. 최근에는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을 인식해 이 부분에도 투자를 쏟고 있는 중이다.

하위 3개국

카자흐스탄, 이라크, 미얀마 소프트 파워 지수 평가에서 하위 3개국으로 선정되었다.

○ 동 조사에서 사용한 소프트파워 분야별 속성(Soft Power Characteristics)

①산업·무역

- 튼튼하고 안정된 경제
- 기업하기 쉬운 환경
- 세계가 사랑하는 제품과 브랜드

②거버넌스

- 정치적 안정성
- 법치 및 인권
- 높은 윤리기준 및 낮은 부패정도
- 안전·치안
- 리더들에 대한 존경

③국제관계

- 외교가에서의 영향력
- 타국과의 좋은 관계
- 도움이 필요한 국가들에 대한 원조
- 환경 보호를 위한 행동

④문화·문화재

- 풍부한 문화유산
- 방문할 만한 장소

⑤미디어

- 영향력 있는 언론
- 신뢰할 만한 언론
- 유심히 살펴보는 사안들
- 좋은 커뮤니케이터들

⑥교육·과학

- 튼튼한 교육 시스템
- 과학 분야에서의 리더
- 기술 분야에서의 선도

⑦사람·가치

- 우호적 태도(friendly)
- 재미(fun)
- 관대한 태도(generous)
- 관용적 태도(tolerant)
- 믿음만한 정도(trustworthy)

○ 항목별 평가 결과

▲친숙함 상위3개국: 미국(8.6점), 영국(8.2점), 프랑스(8.1점)

▲영향력 상위3개국: 미국(7.7점), 중국(7.1점), 영국(6.3점)

▲평판 상위3개국: 스위스(7.6점), 일본·캐나다(7.5점), 독일·스웨덴(7.4점)

* 한국: ▲친숙함 6.7점, ▲영향력 4.5점, ▲평판 6.7점

코로나 팬데믹 현실화되면 ‘세계 GDP 1조 증발’

*본 내용은 해외문화홍보원의 “해외 싱크탱크 보고서 이슈브리핑 제7호”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원제 Coronavirus pandemic could cut world GDP by \$1tn (2020.02.19.)

발행 英 Oxford Economics(옥스퍼드 이코노믹스)

링크 <https://www.oxfordeconomics.com/my-oxford/publications/540003>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현재 중국에서 대유행중인 코로나19가 아시아 대륙과 유럽으로 확대될 시, 경제 분야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두 가지 시나리오를 작성했다.

○ 소개

코로나19는 중국의 상반기 경제성장률을 단기간에 크게 약화시켰고 전 세계 경제도 위축될 전망이다. 이에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2020년 GDP 성장 예측률을 6%에서 5.4%로 하향조정 한 바 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확산될 경우를 가정하여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중국과 인접 아시아국에 국한되는 ‘아시아 대유행 시나리오’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전 세계적 대 유행(pandemic) 시나리오’이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각 시나리오에 따라 옥스퍼드 글로벌 경제 분석 모델을 적용해 코로나19가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을 전망했다. 코로나19는 중국 본토를 중심으로 발생했으나, 이란과 이탈리아를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본 보고서의 예측은 매우 주목해 볼 만하다.

[표] 시나리오 구축 방식과 GDP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

시나리오 구축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스, 돼지열병 등 기존 선례를 근거로 시나리오 구축 •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타격이 2020년 1분기 및 2분기에 집중되고, 사태가 진정됨에 따라 여파가 감소하는 것으로 시나리오 구축 	
GDP에 영향 끼치는 요소	선택성 소비 감소	전체 소비의 40%차지. 확진자 발생, 외출 자제 등의 영향을 받음
	노동 공급 감소	코로나19로 인해 노동이 불가능한 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생산에 차질 발생
	관광 감소	감염 우려로 인한 여행과 관광 지출 급감
	투자 감소	불확실성, 수요 감소, 공급사슬에 대한 지장으로 투자 감소
	금융 시장 파급 효과	주가 하락과 단기 금융 상품의 가격 상승 등

1. 아시아 대유행 시나리오

2020년 한 해 세계 GDP는 기준치¹에 비해 4천억 달러(0.5%)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코로나19의 전염 확산을 막기 위해 경제활동과 무역이 제한되면서 세계적인 경제적 위기가 우려되었으나 미국 환율 감소와 같은 정책 조치로 부분 상쇄되었다.

2020년 상반기 세계 GDP 성장률 전년 대비 1.5%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 반등이 예상된다.

아-태지역 GDP 성장률 2019년 말 4%, 2020 상반기 1.5%를 기록하며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최저 성장률을 기록했다. 특히, 중국의 2020년 1분기 성장률은 전년 대비 2.6%로, 이는 30년 만에 최저치이다.

회복세 코로나19의 여파로 2020년 상반기에는 큰 경제적 타격을 입지만, 2021년 후반에는 기준치에 가깝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분석 결과 도표 참고)

¹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서 이전에 예측한 수치로 아래 도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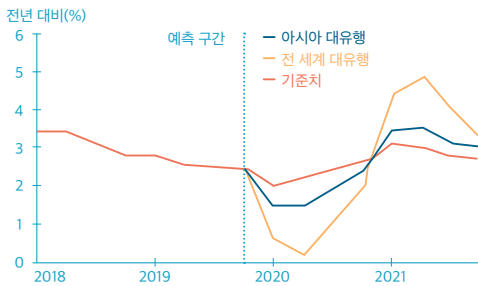
2. 전 세계 대유행 시나리오

2020년 한 해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크게 번지면 세계 GDP 성장률은 기준치보다 1조 1천억 달러(1.3%)를 감소시키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했다. 또, 2020년 상반기 세계 경제 성장률은 0%에 가까이 달하며 미국 및 유럽연합국들에서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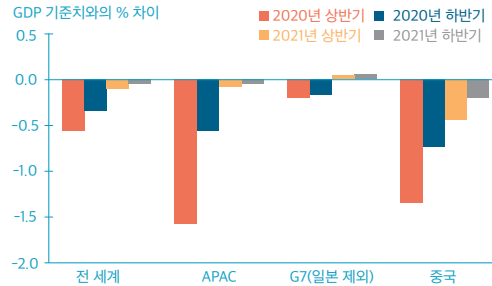
회복세 코로나19는 세계 GDP에 짧지만 매우 가파른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하나, 바이러스가 잡힌 이후 세계 경제는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 분석 결과 도표 모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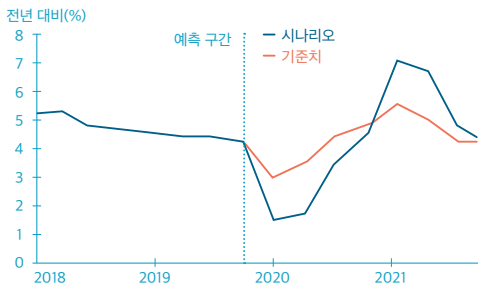
〈공통〉 세계 GDP (두 시나리오 모두 상반기 급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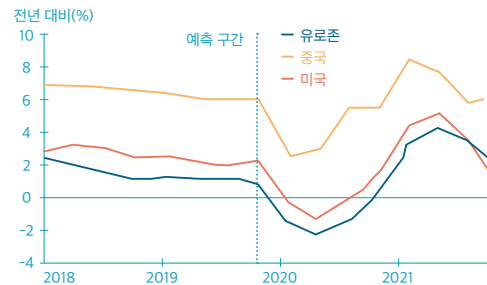
〈아시아 대유행〉 세계 GDP (20년 상반기 손실¹⁾)



〈아시아 대유행〉 아-태지역 성장률 (10년 내 최저치)



〈전 세계 대유행〉 GDP 성장률 (선진국에 타격적)



IV

이달의 담론

2020년
한-러 상호교류의 해,
새로운 문화 소통을
생각하다

이달의 담론

2020년 한-러 상호교류의 해, 새로운 문화 소통을 생각하다

한국과 러시아 두 나라가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는다. 1990년 외교관계 수립 이후 여러 영역에 걸쳐 크게 활성화된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기 위해, 양국 정상은 2020년을 상호교류의 해로 선언했고 또 어느 때보다 풍성한 교류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었다. 우리 모두가 지구적 차원의 초 불확실성 속으로 내몰린 현 상황이 아니었다면, 지금쯤 양국관계의 특별한 한 해를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들이 한국과 러시아 여러 도시에서 열리고 있을 것이다. 모든 계획이 뒤로 밀려나면서 여러 행사와 프로그램의 개시 시점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지만, 한-러 상호교류의 해가 갖는 의미를 곰곰이 생각 하면서 문화 교류가 양국 관계 활성화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그 잠재력의 실현 방안 등을 파악하고 탐색하는 작업은 나름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양국 간 교류 역사의 특징적 흐름을 개괄하고, 30년 동안 축적된 문화예술 교류의 성과와 한계를 논의한 다음, 미래 지향적 협력 방향과 우리가 견지해야 할 입장 등을 정리해 보기로 하자.

1. 다시 만난 오랜 이웃, 러시아

두만강을 경계로 한반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는 오래전에는 육로로 접근 가능한 이웃 나라였다. 양국 간 직접적 교류가 지속해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약 150년 전 한반도 최북단 지역 거주 우리 동포들이 러시아 땅으로 이주했고, 구한말 열강이 각축을 벌이던 시절 한반도로 러시아 문물이 활발하게 유입된 적도 있었다. 양국 사이의 사회 문화 교류를 조망한 두 권의 책 『사바틴에서 푸시킨까지: 한국 속 러시아 발자취 150년』과 『포시에트에서 아르바트까지: 러시아 속 한국 발자취 150년』은 사람의 이동, 상대국에 대한 연구, 문화예술 교류와 그 영향,

양 국민의 상호 인식 변화 등을 다루면서 양자 간에 꽤 흥미로운 역사가 전개되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두 나라 사람들의 만남과 교류를 매개로 탄생한 극적이고 감동적인 스토리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러시아는 가까운 이웃 나라인 것이다. 비자 없이 두 시간 남짓 비행기로 이동하면 도착하는 블라디보스토크가 몇 해 전부터 한국 관광객들의 인기 여행지로 떠오른 것도 오래전부터 있었던 북방과의 인연이 일부 작용했을 것이다.

두 나라 국민이 직접 영향을 주고받던 관계는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크게 위축되었고, 해방 후

분단 공간에서 러시아(소련)는 한국인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갈 수 없는 땅일 뿐 아니라 언급조차 불가능한 금기의 대상이었다. 그런 '무서운' 나라 소련과 러시아인이 갑자기 우리 앞에 나타났으니, 1988년 서울올림픽 때 일이다. 우리 북방정책과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 정책이 서로 조응하면서 일어난 커다란 변화였다. 그 결과 1990년대 초 한국에서 러시아에 대한 관심은 치솟았고 한국을 찾은 러시아 공연단과 저명 예술가, 러시아 거주 우리 동포들의 방한 관련 보도가 연일 주요 일간지의 앞면을 장식했다. 그리고 전국 주요 대학들은 러시아 관련 학과를 앞다투며 개설했다. 하나, 당시 체제 전환기의 극심한 혼란 속에 놓여있던 러시아는 우리의 열렬한 관심에 호응할 여유가 없었다. 그즈음 모스크바를 찾았던 한국인 대다수에게 이 나라는 부패와 혼란이 난무하는 땅으로 각인되었고, 러시아를 향하던 우리의 일방적 기대와 희망은 곧 회의와 실망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3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 두 나라 관계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그 사이 양국 관계는 '전략적 협력동반자'로 격상되었고, 교역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분야 협력도 다변화되고 있다. 2014년 단기체류 비자면제협정 체결 이후 상대국을 방문하는 양 국민 숫자가 지속적 증가세를 보인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양국 간 매년 50만 명 이상의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이 숫자를 100만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도 발표된 바 있다.

특히 양국 관계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 신호는, 우리 젊은이들 다수가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극동 지역 여행을 즐기고 있고, 러시아 청소년 사이에서 한국 대중문화의 인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K-drama, K-pop, K-beauty 등으로 확장된 우리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은 최근에는 K-food 등의 영역으로 번져나가고 있고, 그 덕분에 한국어 학습자 숫자가 러시아 전역에서 크게 늘고 있다. 포항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한·러 지방정부 협력포럼'처럼 기존의 수도 중심의 교류 방식이

지방 대 지방 교류로 다변화되고 있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한쪽의 일방적 관심이나 독백형 교류의 틀에서 탈피하여, 대화와 협업의 환경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러시아와 문화예술 교류 30년, 그 성과와 한계

수교 후 한·러 관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양자 간 교류의 활력은 국제 정치 환경의 변화에 따라 부침했다. 소위 말하는 '북방을 향한 우리의 관심'이 고조될 때 러시아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부각되었고,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 시야의 주변으로 밀려나곤 했다. 그러다 보니 문화예술 분야 교류 역시 양국 공통의 목표, 양 국민의 관심 수준, 문화예술 교류의 세계적 추이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양국 정부 간 교류의 장식품 역할을 하는 정도에 머무는 경우가 빈번했다. 수교 몇 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이런저런 행사를 준비하고 끝나면 잊어버리는 식이었다. 어느 한쪽의 잘못은 아니며, 한국과 러시아 두 나라 해당 분야 파트너들이 서로 상대방 의도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고, 협업할 수 있는 공감대와 노하우가 아직 축적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과 러시아의 경우처럼 오랜 단절 후 다시 만난 두 나라 사이의 교류가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축적된 상호 교류의 경험, 상대방을 향한 호감과 관심 수준, 양측의 문화예술에 공히 기여할 수 있는 협력 분야 등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단계별 전략 수립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수교 30주년을 맞은 지금, 한국과 러시아 두 나라는 문화예술 분야 활성화를 매개로, 자신과 타자 사이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맞고 있다. 일부 예술 장르에서 이미 축적된 호혜적 협력 성과들을 모델로 삼아 인접 또는 기타 영역으로

이 같은 사례들을 확산시키는 일에 가속도를 내기에도 좋은 시기이다. 과거에는 한국산 제품의 우수한 품질로 러시아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면, 현재는 우리 대중문화, 의료관광, 한국어와 한국 음식 등의 치솟는 인기에 힘입어 한국에 대한 관심이 고공비행 중이다. 극동 지역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은 일정 부분 한국과의 협력에 주목하고 있으며, 따라서 극동 시베리아 지역과의 문화예술 교류도 양국 협력을 견인하는 촉매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 세계 유명 관광지를 두루 섭렵한 한국의 여행자들에게도 러시아는 꼭 가봐야 할 '마지막' 여행지로 떠오르고 있다. 러시아 연구자라면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가장 가까운 유럽, 블라디보스토크'라는 여행사 광고 문구나, '시베리아 횡단 열차'로 연상되는 광활한 공간에 대한 매력 등이 러시아를 가까운 나라로 만드는데 기여했다. 한국에서 러시아에 대한 인기가 급상승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최근에 러시아 여행을 통해 발견한, 과거와 다른 변화하는 러시아의 모습은 우리의 고정된 시각을 조금씩 바꾸어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한국과 러시아 여러 도시를 연결하는 항공 루트가 늘면서 상대국 방문자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양국 간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6년부터 한국외대 러시아 연구소와 모스크바 프치옴연구소가 매년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양 국민 상호인식수준 조사 결과를 보면, 두 나라 국민 중 절반 이상이 '상대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밝히고 있고 '가족과 전통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등의 정서적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에서 양국 간 교류 활성화의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다.

3. 새로운 문화 소통을 위한 과제

그러면 '우정과 신뢰로 함께 빛나는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펼쳐질 2020년 한-러 상호교류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점들은 무엇일까. 우선은 양국 간 문화예술 교류 역사가 30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 세기 반에 걸쳐 훨씬 긴 기간 동안 진행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런 역사 속에서 최근 30년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미래 협력 비전을 설정한 다음, 러시아 측과 공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양 국민 사이의 '우정과 신뢰'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 문화예술의 수용과 상호 영향, 상대국을 향한 관심과 사랑 등과 같은 자산들을 찾아내는 작업도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 국악계의 거목 고 황병기 선생은 부산 피난 시절 LP로 러시아 작곡가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을 우연히 접한 후, 우리 전통 음악에 평생을 바치기로 결심했다는 얘기를 남긴 바 있다. 현대 음악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저명한 러시아 작곡가의 예술 세계와 황병기 선생의 음악 정신 둘 다에 정통한 전문가라면 의미 있는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양국 간 문화예술 교류 역사 속에 존재하는 이 같은 진정한 문화 소통의 수많은 사례들은 올 한 해를 넘어 오래오래 양국의 문화적 유대를 공고히 하는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친구로 여기고 우정을 쌓고자 하는 러시아 문화계의 움직임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도 생각해볼 일이다. 러시아 문화 정책 수립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주요 인사들은 과연 누구이고, 러시아 문화부 외에 어떤 기관들이 대외 문화예술 교류 예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또 각 기관들이 어떤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일까도 궁금하다. 러시아 측 인사들과는 연락이 잘 닿지 않고 소통도 힘들다는 푸념은 과거에나 해당 하는 얘기다. 자신들의 국제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러시아에 대한 호감을 높이는 일을 외교 및 문화 정책의 키워드로 인식하고 있는 러시아 역시 대화와 협력이 가능한 파트너를 찾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러시아

정부가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발신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전략을 우리가 이해하고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느냐이다. 대문호 톨스토이의 후손으로 푸틴 대통령의 문화 담당 보좌관으로 활동 중인 블라디미르 톨스토이나 문화부 장관 역임 후 대외문화교류를 총괄하는 대통령 특별대표로 활약하는 미하일 슈비드코이 등 지한파 인사들과의 협력도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자신들이 미국을 포함한 서구에 의해 ‘포위된 요새’ 상태에 놓여있다고 생각하는 러시아 지도부가 현재 애국주의적 정서를 상당히 강조하는 문화 정책을 시행 중이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 2020년은 2차 세계대전 종전 75주년이 되는 해로, 전 세계를 위협하던 나치 세력을 물리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러시아의 위대한 승리를 기념하는 행사들이 한 해를 가득 장식할 예정이다. 금년의 한-러 상호교류 행사 또한 ‘기억과 영광의 해’로 명명된 2020년의 애국주의적 분위기를 고려하면서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블라디보스토크를 찾는 우리 여행자들이 그 지역 소재 독립운동 관련 유적지를 둘러보듯이, 러일 전쟁 당시 제물포 해전을 기념하는 인천 연안 부두의 바라그 호 추모비와 같은 러시아 근현대사와 연관된 기념 공간이나 건축물 등이 러시아인들 대상의 애국 투어 방문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 메시지의 일방적 발신이 아닌, 러시아의 입장과 태도를 이해하면서 대화하는 소통형 문화예술 교류로의 전환이 필요한 셈이다.

성공적 상호교류를 위해서는 일반 대중들의 관심과 호응도 중요할 것이다. 앞에서 수교 이후 한국의 러시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은 체제변환기의 러시아 상황 때문에 일방적인 성격이 강했다고 말한 바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러시아 측의 한국을 향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대되는 추세를 보이지만, 현재 한국에서 러시아에 대한 관심은 주변부로 밀려나 있다.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측의 적극

적 노력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 학술 문화 교류 등에서 나름의 중요성을 갖는 러시아가 우리나라에서 저평가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따라서 주한 러시아대사관, 국내 거주 러시아인 커뮤니티, 한국의 러시아 전문가 집단 등과의 협력을 통해 양국 관계에서 문화예술 교류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널리 확산시키는 노력도 있어야 할 것이다.

양국 국민이 상대국 문화예술에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 현황도 살펴보자. 19세기 및 20세기 러시아 고전문학의 대표작들은 모두 한국어로 번역되었다. 하지만 러시아 현대 문학의 한국어 번역 소개는 빈약하기 짝이 없다. 대조적으로 한국 문학의 러시아어 번역은 현대 작가에 지나치게 쏠려있다. 한국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최대 궁금중은 우수한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예술성 높은 음악, 젊은이들을 사로잡은 K-pop과 K-drama 너머의 한국 고유 정신세계와 정체성이다. 러시아인들이 접할 수 있는 이런 분야에 대한 서적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모스크바 시내 주요 서점의 외국 관련 코너에 진열된 한국 관련 도서라고 해야 단어장 수준의 사전, 한국어 학습서, K-pop 스타들의 노래 가사집, 외국어에서 번역한 한국 관광안내서 등이 고작이다. 러시아 출판 시장과 현지 한국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고전과 학술 도서 출판에는 우리 측의 지원과 투자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대중적 콘텐츠는 대부분 정부의 관여나 지원이 없을 때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한국 관련 학술 도서나 우리 고전문학의 번역 등과 같은 분야는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 되고 정부나 공공기관이 나서야 한다. 또 하나 답답한 것은, 유튜브 상에 떠도는 한국 관련 동영상은 넘쳐 나지만 정작 우리 문화예술 전통, 그리고 한국의 삶을 잔잔하게 조명하는 콘텐츠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이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러시아와 공동으로 두 나라의 문화 전통이나 정신세계, 그리고 일상의 삶을 깊이 있게 다루는 다큐 시리즈 제작 계획도 세워볼 만하다. 이런 프로젝트는 양국 대학의

영화전공 학생들의 참여만으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상호교류의 해에 펼쳐는 활동의 일환으로 양국 문화부의 주도하에 산하 예술교육 전문 교육기관들 사이의 교류 협력이 크게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하고 싶다. 음악, 연극, 영화, 발레, 미술, 건축 등을 전문으로 하는 우수교육기관 사이의 협력은 양국 문화예술 교류의 미래를 열어나갈 젊은 세대들에게 쌍방향 협력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다. 서로 배울 점이 있겠지만, 특히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예술 분야의 체계적 교육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독창적 자산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0년 한-러 상호교류의 해가 시작되었다. 지난 30년 동안의 교류 성과를 바탕으로 두 나라는 상대국의 사회적·역사적 현실을 새롭게 인식하고, 이를 통해 공존과 상생이라는 공통 목표를 추구하는 새로운 방식의 문화 소통에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V

What's On KCC abroad

재외한국문화원 4월 활동계획

미주 | 멕시코, 브라질

유럽 | 러시아

아시아 | 인도, 동경, 상해, 카자흐스탄, 홍콩

* 다음 행사일정은 코로나19 여파로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미주

멕시코

○ 한식 미식회, 한국의 대표 음식 전 (04.02.~04.07. | 온라인)

- 한국의 다양한 종류의 전과 전 문화 소개,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진행 계획

브라질

○ “나도 한류 유튜버” 경연대회 (4월 | 문화원)

- 우수 한류 동영상 시상, 방송인(유튜버) 초청 강연 진행

유럽

러시아

○ 패러디 영상 콘테스트 (4월 | 온라인)

-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유명한 장면을 짤은 패러디 영상으로 촬영해 제출,
우수작품 선정해 선물 증정 및 문화원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아시아

인도

○ 제2회 전인도 문화원장배 태권도 대회 (04.13.~04.15. | 뉴델리)

- 인도 남녀 태권도 선수 500여 명 카뎃, 주니어, 시니어 부문 겨루기 대회

동경

○ 한일교류 작문 콘테스트 (04.10.~ | 문화원)

- 양국 어린이 및 성인 대상으로 한일 서로에 대한 마음을 전해주는 에세이,
센류·하이쿠, 한국여행기 대회 *7~8월 심사, 10월 수상작 발표

상해

○ “봄이 오는 소리” 연주회 (04.29. | 문화원)

- 코로나19 극복의 뜻을 담은 희망 메시지 주제로 연주회·가요제 개최

카자흐스탄

○ DMZ 사진전 (03.16.~05.02. | 문화원 로비)

- 철원군 내 위치한 비무장지대 DMZ 생태평화공원 및 근방 관광지 사진전을 통한 한국의 자연 소개

홍콩

○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품전 (03.12.~05.02. | 문화원 전시실)

- 국립현대미술관 협력/ 한국 근현대 작가 34인 (김창열, 정상화 등)의 작품 소개

월간 해외문화정책동향

모음

2020년 4월호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www.kocis.go.kr

발행일

2020년 4월 9일

발행인

유병채

기획·편집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최경희, 조소영, 강민영

www.kofice.or.kr

외부 집필진

윤종석 | 주 오스트리아 문화홍보관

김현택 | 한국외국어대학교 노어과 교수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해외 통신원

디자인

studio 213ho

www.213ho.com

ISSN 2713-9387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KOFICE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KOFICE